

국가 유산 활용 교육·체험 ‘역사 가치 재조명’

시,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 선정
역사·인문·체험 분야로 구성
생생 문화유산 등 4개 사업

나주시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지역 문화유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험·교육 등을 구성해 지역 유산 가치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역사, 인문, 체험 분야로 구성된 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별 국가 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해마다 국가유산청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문화유산이 지역민들에게 더욱 친밀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각각의 장소에 담긴



나주시지역 어린이들이 최근 나주향교에서 유교문화, 예절교육 등을 체험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역사적·인문학적 가치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 기후 위기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

하고 지속가능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나주시가 선정된 사업은 ‘생생 문화유산’, ‘문화유산 야행’,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학교’,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등 4개 사업이다.

나주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생생문화 유산은 나주읍성 문화재 및 영산강 정자 탐방, 천연염색, 미천서원의 기연묵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유산 야행은 야간시간대 금성관, 나주향교, 나주목사내야 등 나주읍성 문화재 일원에서 펼쳐지는 축제 행사로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굽은 소나무학교에선 조선시대 최대 규모 향교 건축물인 나주향교에서 유교문화, 예절교육, 전통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다도면에 위치한 천년고찰 불회사에서 진행되는 전통산사 체험은 전통차 시음 및 예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나주문화유산 야행을 제외, 3개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생생문화유산은 나주문화원(061-339-5115)과 빛가람발전협동조합(010-9809-3563), 굽은 소나무 학교는 나주향교컨텐츠사업단(061-334-2338), 전통산사 문화유산은 불회사(061-337-3440)로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천년 목사고을 나주시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관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지역 문화유산에 더욱 친밀히 다가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다시면 일대 고분군’ 사적 지정 국제학술대회 성료

복암·정촌·영동·가흥고분군 등
국가 사적 지정 가치 확인

나주시가 사적(史蹟) 복암리고분군과 정촌고분, 영동리고분군, 가흥리고분 등 다시면 일대 고분 유적의 사적 지정을 위한 담론의 장을 펼쳤다.

나주시는 정촌고분 출토 10주년을 맞아 최근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나주 다시고분군과 주변 유적 조사·연구현황과 의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유은식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자인 나주국립대학교 명예교수는 ‘영산강 고대문화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전략’을 발표, 영산강유역 웅관고분군의 국가 사적에 이은 세계유산 지정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주호(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오동선(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허진아(전남대학교), 강인욱(경희대학교), 이영철(대한문화재연구원), 장스위안(張士軒·중국 절강성 문물고고연구소), 시노하라 유키히로(下原幸裕·일본 후쿠오카현 교육위원회)가 주제발표를 했다.

윤병태 나주시장, 김연수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이상만 나주시의회위원장, 이재태 전남도의원, 조영미 나주시의원 등 내



나주시는 최근 ‘정촌고분 출토 10주년’을 맞아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에서 ‘나주 다시고분군과 주변 유적 조사·연구현황과 의의’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나주시 제공

빈과 역사·문화 관계기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관심과 지지를 보였다.

김주호 연구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나주 다시면 일대에 인간 활동은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됐으며 삼국시대 들어 웅관묘, 고분의 수평·수직 확장 등 독특한 토착문화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오동선 연구사는 삼국시대 다시고분군 일대 고분 조영세력은 토착문화인 웅관고분을 사용해오다 점차 백제 중앙 행정력이 미치면서 석실을 도입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허진아 교수는 다시고분군에서 출토된 구슬에 주목하면서 동남아시아-남중국-동중국-서해안-남해안-일본으로 연결되는 동아시아 해상교류망을 통해 유입된 교역품으로서 유물적 가치를 재조명했다.

강인욱 교수는 유라시아 전역을 보아도

마한과 같은 독특한 무덤문화를 발달시킨 곳은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마한 문화의 특수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영철 원장도 다시면 일대 고분이 각자의 가치도 충분하지만 상호 계승되며 발전하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우리 지역 문화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종합토론은 최성락 교수를 좌장으로 교수 및 국가유산청 심의위원들이 참여해 다시고분군 사적 지정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다시면 일대 유적들을 통해 마한역사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한 계기가 됐다”며 “다시고분군 사적 지정과 더불어 향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최근 나주시 금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어르신을 찾아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미용 봉사시간 동안 어르신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안부를 살피는 시간도 가졌다.

나주시 제공

보건지소 11개소 ‘녹색 건축물’ 탈바꿈

10년 이상 노후 보건소 개보수
쾌적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나주시가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보건소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다.

28일 나주시에 따르면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보건지소 11곳에 대한 건축물 개보수를 지난 20일자로 마무리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노후 건축물 성능을 개선하는 국가 그린뉴딜 정책사업의 일환이다.

준공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 된 보건소 등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생활 환경 개선, 신기술시스템 설치, 미관 정비 등에 주안점을 둔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그린 건축물에 대한 인식 확산을 도모한다.

나주시는 총사업비 50억원(국비35억

원·시비15억원)을 투입해 다도면 보건지소 착공을 시작으로 작년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보건지소 11곳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마쳤다.

전체 건축물에 대한 내·외벽 단열재, 고성능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장치 및 LED조명 설치 등을 추진했다.

보건소 본소의 경우 오는 11월 경 준공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보다 쾌적해진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금남동지사협, 찾아가는 이·미용 봉사

나주시 금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준희·민간위원장 허현숙)가 최근 지역 어르신을 찾아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28일 나주시 금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이번 이·미용 봉사는 금남동지사협 복지특화사업 중 하나로 허현숙 위원장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으며 미용봉사가 진행되는 동안 어르신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안부를 살피는 시간도 가졌다.

허현숙 위원장은 “커트 후 말씀해준 모습에 만족해 하시는 어르신을 보니 보람

을 느낀다”며 “부족하지만 힘 닿을때까지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금남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재능기부에 섰는 나주시민 허현숙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금남동이 되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남동지사협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달 거동 불편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3가구씩 방문케 커트 등 이·미용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조대봉 기자